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라.’

이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달리기 선수에게는 도착 지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의 정상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은 식탁 개량에 흥미를 갖고, 내일은 식기에 달린 손잡이를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엔 아기의 우유 병이나 모기장 등을 연구하는 식으로 변덕스럽게 목표를 옮기면 발명은 성공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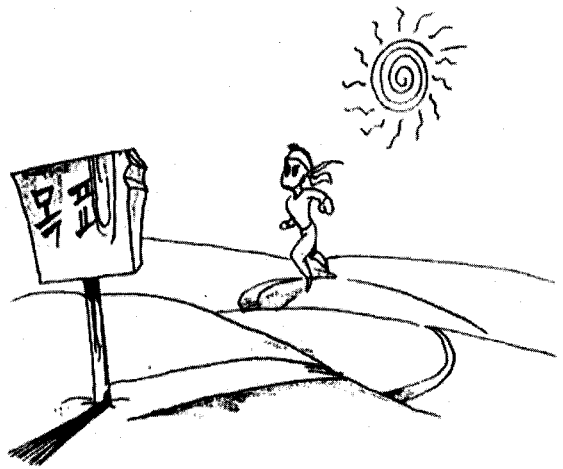
처음에 식탁을 연구하기로 했으면 내일도, 모레도 식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발명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이다. 그래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심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신중히 선택된 목표가 필요한 것이다. 결승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누가 그렇게 고된 경기를 하려 들겠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에게 이익이 될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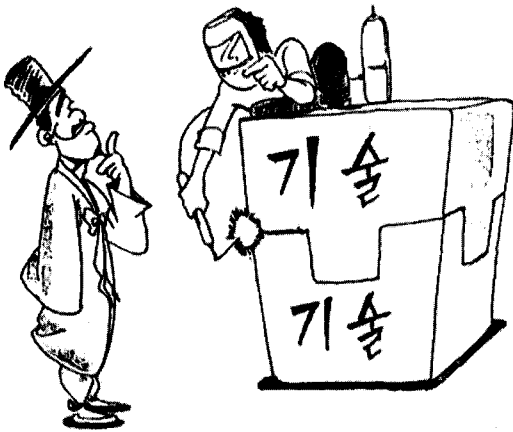
자신에게 신중히 물은 뒤 목표를 결정하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신의 직업 안에서 목표를 잡으려고 노력해보라. 그러면 목표를 잘못잡는 실수를 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직장에서 발명의 목표를 정하면 발명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발명가들이 자신의 직업 속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전파사의 종업원이 쌍소켓과 자전거의 램프에 관심을 두어 이것을 발명했다. 그리고 유선형 만년필의 발명자인 파커는 원래 만년필상 점원이었다.

항상 남의 떡이 커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남의 떡은 남의 떡일뿐 내 떡이 될 수는 없다. 서투르게 남의 직업을 흉내내면 결국엔 내 직업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발명하는 기술자가 되어라

농경기술, 직조기술, 기계기술...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기술을 터득하고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생활을 이끌어 왔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력하는 기술자란 바꿔 말하면 발명하는 기술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전대로부터 전해지는 기술을 받는 데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새로운 기술로 재창조 해낸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자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진정한 기술자가 부족하다. 온 세계에 만연하는 이기주의의 탓 때문

인지 어려운 일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 한다.

가르쳐 주는 기술이나 배우고,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적당히 살겠다는 무사안일 주의가 온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것이다.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언젠가 모 인사가 강연회에서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당시 강연회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상당한 충격과 감명을 주었다.

“...피카소의 그림은 훌륭하지만 그것은 후배들의 발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최고의 지식이었던 만유인력의 법칙을 지금의 중학생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배의 기술을 후배가 모두 이어받아 새로운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선배의 업적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더 높은 발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자에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의 말대로 기술을 좀더 발전시키고 이를 응용하는 것은 기술자 자신의 특권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또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이 책임을 모두 완수할 때에야 비로소 기술자는 완전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발명기술 진흥을 부르짖으며 발명인구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때일수록 발명하는 기술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왕연중記〉 발특9801